2026. 2. 23.

금융 Weekly Insight

증권주 – 우호적 수급, 양호할 실적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2월 넷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KOSPI가 지난주 5,800선을 돌파. 금융 업종 또한 견조한 수익률을 시현하였는데, 설 연휴 전주인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증권주는 40.6%의 경이로운 주가 상승률을 시현. 은행과 보험 또한 각각 16.1% 및 24.6%의 높은 주가 상승률 시현.
- 설 연휴 전후의 하이라이트는 증권주. 이의 상승을 이끈 것은 연휴 기간 누적된 매수 심리 및 이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등 수혜 기대감. 한편, 자사주 소각 법안 법사위 통과 등 정책적 변화 또한 주가 상승에 기여.
- 한편, 올해 들어 높은 주가 상승률에도 불구, 은행주는 여전히 '26E 평균 PBR 0.9배로 Valuation 부담이 낮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긍정적 시각 유지. 보험주는 장부 가치 상승에 따른 저평가(PBR)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국면.

금융 Overview

- 은행 – 은행주 평균 PBR은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 은행주는 설 연휴 전주인 2월 9일부터 16.1% 상승세를 시현하였고, 업종 주도주인 KB금융은 '26E PBR 1.0배를 기록, 드디어 1배를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주는 충분한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 시각을 유지. 1) 은행주 평균 PBR은 여전히 0.9배로 1배를 하회하며 Valuation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고, 2) 올해 은행들은 이자이익 성장 및 충당금 하향 안정화 등에 기반한 전년 대비 견조한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3) 주주 환원율은 50%를 넘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특히, 올해 실적에 있어 최대 관건은 비은행 부문의 회복. 이는 1) 비은행 부문이 지난 2~3년간 부동산 금융 등으로 인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시현한 점을 감안할 때, 반등 여력이 높은 가운데, 2) 이들의 실적 개선이 주주 환원율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ROE의 제고는 물론, 3) Money move로 대변되는 현재의 환경 하에서 금융그룹 구조의 차별화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 증권 – 폭발적 상승세: 증권주는 설 연휴 전주인 2월 9일부터 40.6%의 상승세를 시현. 특히 연휴 직후 거래일에서 섹터 전반 주가 급등세를 시현했는데, 매수 심리 누적에 따른 수급 유입 및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기대감 기반인 것으로 판단. 2월 MTD 일평균 거래대금은 63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12월 대비 144% 증가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즉, 기대감 외에도 실제로 1분기 실적 레벨에 대한 가시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관건은 Valuation 수준인데, 현재 대형 증권사 기준 PBR은 1.5~2배에 육박하는 상황. 해외 상장 Peer 기준으로 볼 경우, 이는 Goldman Sachs-Morgan Stanley 등 대형 IB와 유사한 수준. 물론 해당 IB의 경우, 자본 활용형(Capital Intensive) 비즈니스의 비중이 높은 만큼, 순수 브로커리지를 영위하는 Charles Schwab(PBR 3배 수준)의 Valuation이 다음 단계 마일스톤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
- 보험 – 저평가 메리트 부각: 보험 업종은 설 연휴 전주인 2월 9일부터 24.6%의 상승세를 시현. 대형 보험 3사(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보)가 지난주 금요일(2/20) 실적 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부진한 본업 실적에도 불구, 금리-주가 상승 등에 따른 순자산가치 확대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특히 보험 업종의 경우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낮은 주가 수준이, 장부 가치 증가와 맞물리며 저평가(PBR 관점)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 물론 본업 펀더멘탈의 경우, 여전히 보험손익 예실차 악화 등 비우호적인 업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파른 주가 급등에는 유의가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2/19) 1월 코픽스 금리 하락** -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12bp m-m 하락한 2.77%를 기록.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2.85%로 1bp 상승. - 이에 익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 금리에 코픽스 금리 변동이 반영. 일례로, KB의 경우 신규 코픽스 변동 금리부 주담대 금리는 4.22~5.62%에서 4.10~5.50%로 12bp 인하됨.	**12월 수신 금리 하향 안정화:** 1월 신규 코픽스 금리 하락은 4Q25 중 수신 금리 상승의 정상화 과정에서 해석. 즉, 연말 만기 도래하는 고금리 수신에 대한 대응 등의 이유로 11월까지 상승했던 조달 금리가 12월 들어 은행들의 대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하향 안정화되었음을 방증. 즉, 은행들의 조달 상황은 12월까지 양호한 것으로 평가 가능. **다만, 수신 금리는 '26년 중 상승 압력 높을 전망:** 다만, '26년 들어 수신 금리는 여전히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올해 은행들은 5% 수준의 대출 성장을 시사, 자금 수요가 높을 전망이고, 최근 증시 활황으로 인해 Money Move에 대한 기대 또한 높기 때문. **은행들의 NIM 개선 가이던스에 초점:**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 상당수의 은행들은 2월 초 있었던 4Q25 실적 컨콜에서 '26년 중 NIM의 소폭 개선을 가이던스로 제시. 이는 올해 대출 성장이 기업 대출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고, 주담대 및 채권의 Re-pricing 등 NIM 개선 요인 등에 기인.
	(2/19) 주식 투자 수요가 카드론으로 - 신용 양극화 -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 카드론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8개 전업카드사의 4Q25 카드론 신규 취급액 중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 비중은 8.2%로 0.7%p y-y 상승하였고, 800~900점 차주 비중도 19.4%에서 22.8%로 상승. 반면, 700~800점 및 700점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동반 하락. - 이와 같은 고신용자 중심 카드론 증가는 고신용 개인 투자자의 급전 수요와 카드사의 이해 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해당 언론은 분석. - 카드론 금리도 양극화. 즉, 고신용자 위주 우대금리 확대로 인해 중저신용자와 고신용자 간 금리 차도 확대.	**우량 고객 중심 카드론 증가는 카드사 수익성에 긍정적:** 카드사의 우량 고객 중심 카드론 증가는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 특히, 은행계 카드사들의 ROE가 mid-single digit 수준으로 낮은 가운데, 2Q25부터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대출 자산 확대 여력이 제고된 만큼, 이와 같은 자산 성장은 이익 및 ROE 개선에 기여 전망. **은행 가계대출 증가 한도 - 카드론 활용 가능하지만...:** 은행 가계대출 증가 한도로 인해 은행계 금융그룹들은 자회사인 카드사의 카드론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특히, 이 경우 금융그룹 구조 상에서는 고신용자 카드론 평균 금리가 10.6%인 점을 감안, NIM에 긍정적 효과도 기대 가능. **금융그룹 전반의 RWA 관리 중요도 고려 시 활용 여력은 제한적 판단:** 다만, 무분별한 카드론 활용 가능성 제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이는 금융그룹들이 지난 해 보여준 RWA 관리 통한 CET-1 비율 방어 및 주주 환원 강화 기조를 감안할 때, 위험 가중치가 높은 카드론을 과도하게 늘릴 유인은 높지 않기 때문. 특히, 올해 대형 금융그룹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RWA 증가요인 또한 명확한 점 고려 필요.
	(2/20) 주담대 금리 역전 - 복잡해진 셈법 - 5대 은행 변동형 (6개월) 주담대 금리는 4.07~5.67%로 고정형 (5년) 평균 4.56~6.15%보다 금리 상하단이 각각 48, 49bp 낮음. - 원인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기대로 주담대 고정 금리 산정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해당 금리는 3.72%로 22.1bp YTD 상승. - 반면, 주담대 변동 금리 벤치마크인 코픽스 금리는 1월 기준 2.77%로 12bp m-m 하락. 12월 취급한 은행들의 수신 상품 금리 하락이 원인. - 이에 12월 은행 신규 취급 주담대 중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은 13.45로 3.6% m-m 상승.	**단기적으로 변동 금리부 주담대 증가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더 낮은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음. 하지만, 고정형과의 금리 차가 불과 50bp가 되지 않는 점과 현재의 높은 금리 변동성, 그리고 향후 단기 금리 상승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현재와 같이 높은 고정 금리 비중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은행 입장에서 현재의 금리 환경은 우호적:** 결국 핵심은 장단기 금리 차의 확대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즉, 은행 입장에서 현재의 환경이 당분간 이어질 경우, NIM의 확대 여력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 **주가 올랐지만 실적도 오른다:** 즉, '26년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대출 성장 및 NIM 개선으로 인해 25년 대비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 필요. 최근 은행주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지만, 은행들의 실적 개선 및 이에 기반한 주주 환원이 뒷받침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다 유효하다고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2/20) 은행 대기업 모시기 강화** - 25년 실적에서 은행권 기업 대출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 여신재편 과정에서 대기업 대출은 빠르게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사실상 정체. 실제로 4대 은행의 25년 말 기준 대기업 대출은 172조원으로 24년 말 162조원 대비 5.9%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55조원에서 562조원으로 1.5% 증가에 그쳤으며, 절대 순증액도 대기업 대비 하회. - 은행들은 CET-1 비율 관리를 위해 위험 가중치가 낮은 대기업 여신과 보증서 담보부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 반면, 중소기업향 신용대출은 위험 가중치와 향후 대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25년 대비 '26년은 변화 가능:** 해당 언론 보도는 25년 실적에 기반. 즉,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이 본격화되는 '26년은 25년과 기조가 다를 수 있음. 특히, 25년 하반기 은행들은 환율 급등과 '26년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비율 강화 압력이 높았던 만큼, 25년 중 대출은 대기업 중심 운용이 보다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하지만, 올해 5% 대출 성장 및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대출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 **다만, 25년 대비 바뀌지 않는 것 - 자본비율 관리:** 다만, 올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자본비율 관리 요구가 높다는 점. 즉,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강화 과정에서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 **자본비율과 생산적 금융은 필수불가결 관계 - 공적 기능 강화와 연계 등 고려 필요:** 은행들의 원활한 생산적 금융 강화와 은행들의 자본비율은 필수 불가결의 관계. 즉, 은행들의 무분별한 기업 대출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은 생산적 금융 강화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 이에 은행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보증서 담보 대출 등이 대표적인데, 향후 환경 변화에 따라 보증 제공 기관에 대한 출자와 관련, 은행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다양한 관련 주체가 분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2/21) 수신 자금 방어 위해 은행들 ELD 판매 증가 - 은행권이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수신 자금 이탈 방어에 나서고 있음. 이들 은행들은 연 10%의 조건으로 지수연동예금 (ELD) 판매를 강화. - 신한은행은 2월 말부터 최고 수익률 연 10% (1년 만기)인 ELD 투자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 해당 상품은 투자기간 동안 코스피200 상승률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수가 오를 수록 금리가 높아지도록 설계된 상품. 다만, 지수가 한 번이라도 20%를 넘기면 연 2% 금리가 적용. - KB도 2월 말 최고 금리 연 10%대의 ELD 출시 준비 중. 지난 달에는 연 최고 수익률 11.2% 상품을 선보이기도 하였음. 하나은행도 연 10% (6개월 만기) 상품을 판매 중.	**ELD 통한 머니무브 대응:** 은행들은 당초 컨콜에서도 머니무브에 대응하여 ELD 판매 강화 등을 언급. 은행들의 최대 강점인 원금 보장 기능에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라인업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겠다는 것으로 판단. **머니무브 - 다만, 은행 수신 고객의 절반 이상은 개인 고객이 아니다!:** 머니무브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은행 수신 고객의 절반 이상은 개인 고객이 아닌, 법인 혹은 공공 및 기타 부문임. 즉, 은행들의 모든 수신이 증시로 움직이는 극단적인 머니무브 우려는 다소 과도. **다만, ELD 등 상품 통한 대응은 단기 전술 - 결국 자산관리 역량 강화라는 본질이 향후 관건:** 다만, ELD 등 상품을 통한 대응은 규모 면에서도 한계가 뚜렷. 이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전술적 관점에서의 대응이라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 결국, 궁극적으로는 개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운용하는 자산관리 역량 강화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
	(2/22)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시 LTV 0% 검토 -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에 적용되는 LTV 0% 규제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 이는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겠다는 것으로 당국은 언급. - 일반 개인 다주택자가 5대 은행에서 받은 주담대 잔액은 '26년 1월말 기준 36.5조원. 이는 23년 1월 15.9조원 대비 130% 증가한 수준. - 다만 이들 주담대는 수십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대부분.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잔액은 499억원가량으로 전체의 0.14%에 불과한 수준. 즉, 만기 연장 불허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도.	**실제 적용 대상 주담대는 제한적:** 개인 다주택자 주담대라 하더라도 기본은 만기 30년 내외의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구조일 가능성이 높음. 즉, 이들 주담대가 매년 만기 도래하는 물량은 크지 않은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 상환과 관련된 event가 발생하는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즉, 은행의 대출 감소 혹은 credit event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다주택자 입장에서 금리 Re-pricing은 부담으로 작용 가능:** 다주택자 입장에서 현재 보유 중인 주담대의 금리 Re-pricing 시 대출금리가 높아질 경우, 이는 부담으로 작용 가능. 과거에는 이를 다른 은행 대출로 차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 **은행 수익성 영향은 미미할 전망:** 다만,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자체가 36.5조원 수준으로 은행 전체 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2/18) 증권사 순익 사상최대지만 '빈익빈 부익부' 심화** - 작년 국내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업종 시가총액의 95%는 대형 5사에 집중되는 양극화 심화 현상 발생 - 대형 증권사의 경우 사상 최대치 실적 경신 및 주가 또한 실적 개선 및 배당확대 기대감 등에 따라 지속 상승 -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대형사 대비 낮은 리테일 점유율 및 고금리 환경에 따른 채권평가손 등으로 부진	**대형사 중심 시장 재편은 지속될 것:** 브로커리지 영역의 경우 1) 브랜드 인지도 및 시스템 안정성 측면 또는, 2) 수수료 경쟁 등 비용 감내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중소형사의 틈새 공략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이에 더해 강력한 플랫폼을 무기로 확장하고 있는 IT 기반 증권사(토스 등)의 약진 또한 위협 요소. 한편, IB 비즈니스 또한 발행어음/IMA 등 추가 조달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회사 간 자금 출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보험	**(2/23) 1·2세대 실손 보험 재매입 '안갯속'** - 정부가 지난해 1,2세대 실손 보험 재매입에 나서기로 했지만, 관련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보험사들은 재매입 비용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주가 하락, 손해율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 한편, 이르면 4월 기존 대비 보험료가 50%가량 인하되는 5세대 실손이 출시될 예정이나, 그 전에 재매입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	**실손 보험 이슈는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음:** 실손 보험의 경우, 단순한 경제성 관점보다는 정부-보험사-계약자-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적 현상적 관점에서 접근이 타당. 이는 곧 특정 주체(ex. 보험사)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기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최근의 특정 비급여 항목의 관리 급여 지정, 5세대 실손 보험 출시 등 긍정적인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재무제표상 수익 여부는 시간을 두고 장기간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2-23(월)	한-브라질 정상회담	미국 12, 1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미국 2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미국 12월 공장주문
		독일 2월 IFO 기업환경지수
		일본, 중국 증시 휴장
2026-02-24 (화)	국회 본회의	미국 2월 소비자신뢰지수
	국무회의 개최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미국 12월 주택가격지수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미국 12월 S&P 코어로직/CS 주택가격지수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미국 2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미국 2년 만기 국채 입찰
		중국 2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2026-02-25 (수)	12월 인구동향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2025년 대외채권·채무 동향 발표	미국 주간 원유재고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미국 5년 만기 국채 입찰
	25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비통화정책회의
		독일 4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독일 3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2026-02-26 (목)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미국 2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
	3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 발표	미국 7년 만기 국채 입찰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지수
		일본 12월 경기동향지수(수정치)
2026-02-27 (금)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
	1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미국 2월 시카고 PMI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미국 11, 12월 건설지출
		유로존 1월 총통화(M3) 공급
		독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독일 2월 실업률
		영국 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2월 주택가격지수
		일본 2월 도쿄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1월 산업생산(예비치)
		일본 1월 소매판매(예비치)
		일본 1월 신규주택착공건수
		일본 1월 건설수주
		대만 증시 휴장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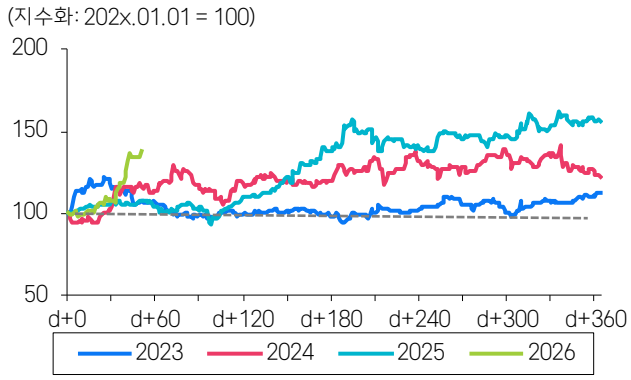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4,656.6	5,808.5						14.1%	18.3%	118.9%	37.8%
	KRX은행	233.7	1,799.7						16.1%	32.4%	101.2%	38.0%
	KRX증권	108.9	3,064.2						40.6%	78.8%	277.0%	100.3%
	KRX보험	108.0	3,694.9						24.6%	37.4%	89.1%	38.0%
	결제 지수**	1.734	n/a						8.8%	40.8%	87.6%	32.1%
은행	KB금융	62.9	168,800	57.9	1.0	11.1	9.3	11.9	13.1%	23.4%	104.1%	35.4%
	신한지주	49.5	102,000	54.4	0.9	10.3	8.7	14.9	9.0%	25.6%	115.6%	32.6%
	하나금융지주	36.5	131,300	50.1	0.8	10.5	8.2	11.7	14.6%	31.6%	110.1%	39.5%
	우리금융지주	30.0	40,800	42.2	0.9	10.3	8.8	9.3	25.7%	41.4%	135.4%	45.7%
	기업은행	22.8	28,550	35.5	0.7	8.9	8.5	5.3	24.1%	37.6%	83.4%	36.3%
	BNK금융지주	7.0	22,650	45.3	0.6	8.8	7.3	18.3	22.4%	45.5%	91.9%	42.7%
	JB금융지주	7.1	37,500	42.4	0.7	9.1	7.4	11.7	32.0%	57.6%	101.2%	46.2%
	iM금융지주	3.5	21,650	49.3	1.2	13.4	9.2	8.7	23.7%	51.1%	125.3%	39.2%
	카카오뱅크	13.7	28,700	50.0	1.9	7.8	25.0	14.0	10.4%	35.1%	19.6%	32.9%
증권	미래에셋증권	40.2	70,900	58.0	1.3	11.2	11.8	14.0	47.7%	138.3%	700.2%	203.6%
	NH투자증권	14.0	39,200	49.3	0.9	10.9	8.5	2.0	51.1%	74.2%	158.7%	85.8%
	한국금융지주	16.3	292,500	20.2	0.9	13.6	7.1	-22.4	42.3%	61.9%	259.3%	80.9%
	키움증권	13.4	495,500	28.3	1.1	19.1	6.7	14.4	22.3%	60.6%	306.5%	71.2%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25.6	146,200	49.9	1.6	24.4	7.0	8.8	19.2%	38.6%	18.9%	29.3%
	삼성화재	28.4	618,000	41.1	1.2	12.4	9.5	12.8	19.1%	24.0%	56.1%	24.3%
	삼성생명	43.8	219,000	45.0	0.6	5.3	12.1	4.1	18.8%	25.4%	129.3%	39.0%
	DB손해보험	13.3	192,300	28.7	1.0	19.2	5.2	15.6	17.2%	49.0%	90.8%	46.7%
	한화생명	5.7	6,600	16.4	0.2	5.6	4.1	37.8	84.1%	106.9%	143.1%	102.8%
	현대해상	3.5	38,800	11.7	0.5	17.5	2.9	18.3	30.2%	40.8%	58.7%	26.0%
결제	카카오페이	9.1	67,400	n/a	n/a	5.6	90.7	57.5	3.9%	34.5%	110.3%	37.3%
	NHN KCP	0.9	22,800	n/a	n/a	17.2	16.4	16.1	8.6%	61.7%	176.0%	52.9%
	KG이니시스	0.3	11,910	n/a	n/a	7.5	5.4	5.5	5.9%	22.8%	34.9%	16.5%
	KG모빌리언스	0.2	5,650	n/a	n/a	10.7	5.0	8.1	5.4%	27.5%	27.8%	20.2%
	나이스정보통신	0.3	27,500	n/a	n/a	9.2	6.3	29.7	16.0%	20.1%	57.6%	8.5%

참고: 2/20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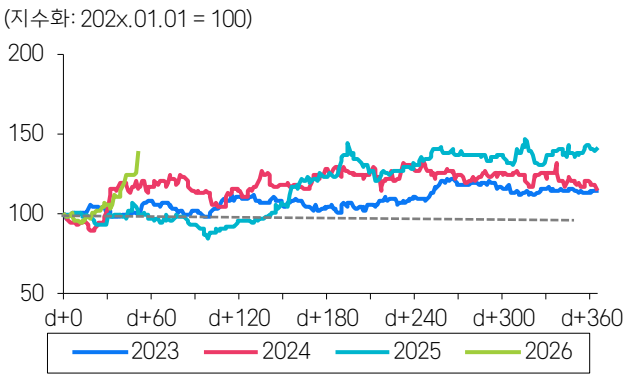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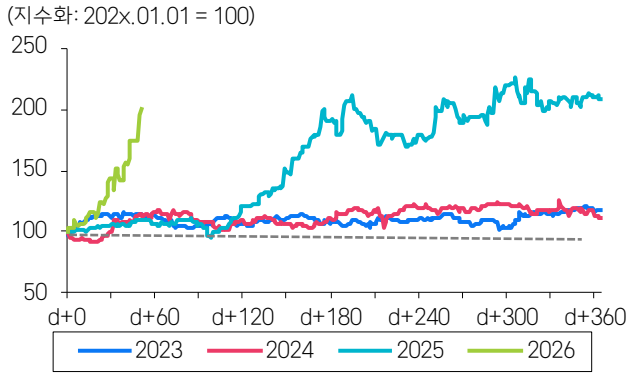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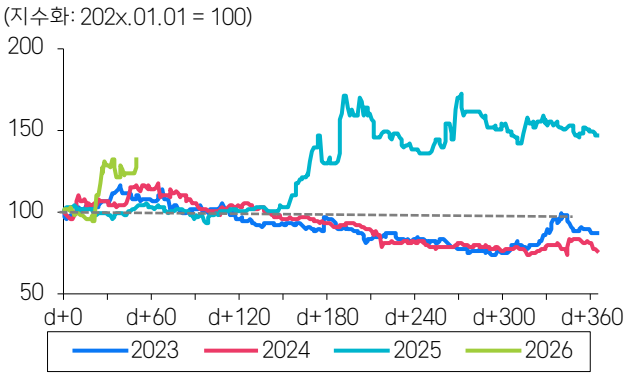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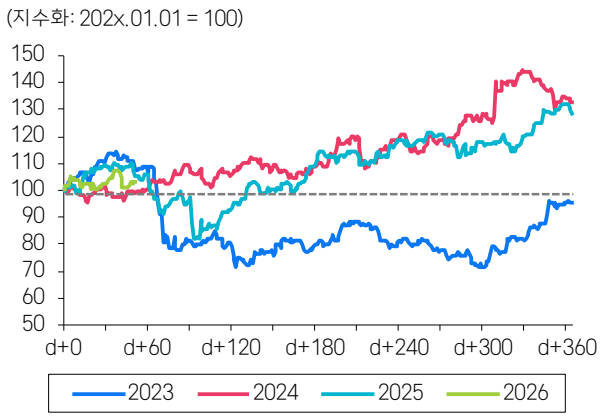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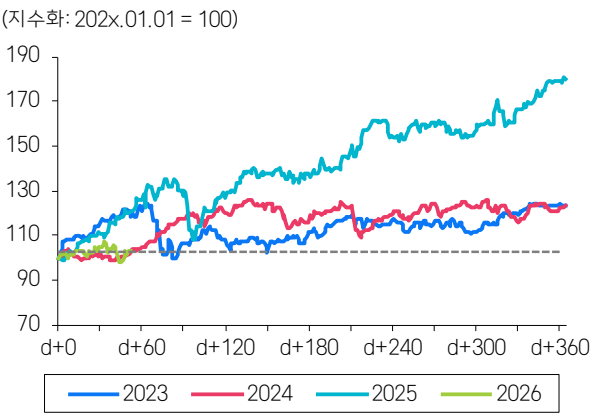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38.2	84.9	2.3	16.3	14.6	6.4	(3.6)	2.4	17.6	(3.5)
		Bank of America	387.5	98.5	1.3	11.3	12.2	12.4	(6.1)	1.2	18.4	(3.5)
		Citigroup	202.9	120.1	1.0	9.2	11.3	46.8	(5.5)	0.3	45.6	(0.6)
		Wells Fargo	278.4	98.2	1.6	12.8	12.7	11.3	(5.6)	0.7	14.5	(4.8)
		PNC Financial	94.0	67.0	1.6	12.9	12.8	9.3	(3.9)	4.9	23.9	11.6
	유럽	Banco Santander	186.8	63.7	1.5	13.4	10.3	9.1	0.9	2.7	82.8	6.8
		Unicredit	131.8	84.3	1.7	16.6	9.9	5.8	(0.0)	3.0	54.7	4.2
		BBVA	134.0	86.9	1.9	19.4	9.7	15.9	(1.7)	(5.8)	61.6	(1.0)
		ING Group	86.7	82.9	1.4	12.8	11.2	3.7	(0.9)	4.0	52.7	5.3
		Lloyds	82.7	82.3	1.4	13.7	10.2	42.0	(2.4)	2.2	55.0	6.0
		Barclays	88.2	65.3	0.9	10.8	9.1	21.9	(1.1)	(2.4)	56.0	(0.5)
	일본	Mitsubishi UFJ FG	225.3	61.4	1.6	10.6	15.2	21.0	(0.3)	3.8	50.9	18.0
		Sumitomo Mitsui FG	147.2	54.5	1.5	10.6	14.5	36.1	0.9	7.6	53.5	18.3
		Mizuho FG	115.3	67.9	1.6	11.1	15.0	36.9	(2.3)	6.6	68.7	25.9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49.0	30.3*	0.6	9.3	6.4	1.9	(1.2)	4.2	14.7	1.9
		China Construction Bank	274.1	29.9*	0.6	10.0	6.3	(1.8)	0.9	5.7	19.5	4.6
		Agricultural Bank of China	322.4	30.9*	0.7	9.9	6.9	4.3	(1.6)	1.7	17.9	(6.4)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74.4	N/A	1.5	9.0	16.7	(27.8)	(2.1)	2.8	3.9	(1.1)
		AIG	43.2	67.3	1.0	10.1	10.6	흑전	4.8	11.2	4.9	(6.0)
		Travelers Insurance	65.9	77.7	1.8	17.7	11.2	(0.4)	1.1	9.5	27.0	5.1
	유럽	Allianz	170.6	79.3	2.4	18.0	13.4	12.8	(2.1)	4.2	18.4	(2.9)
		AXA	98.4	51.3*	1.8	17.4	9.2	23.6	0.4	5.5	7.6	(2.8)
		Generalli	65.4	56.8*	1.7	13.7	13.0	13.8	0.1	6.8	13.9	(0.2)
	일본	Tokio Marine	80.8	41.9*	2.4	20.0	12.5	(4.5)	7.2	10.5	26.7	11.3
		Daiichi Life Insurance	37.3	44.5*	1.5	12.2	13.6	(0.8)	8.7	15.4	38.2	19.8
	중국	Ping An Insurance	168.1	33.7*	1.3	14.3	8.7	13.0	1.4	5.3	49.5	8.3
		China Life Insurance	174.9	15.1*	1.5	27.9	5.9	51.7	(0.4)	6.4	120.8	22.6
		PICC P&C Insurance	47.0	34*	1.3	16.5	8.0	41.9	4.3	4.3	24.9	0.9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87.3	98.8	2.4	16.2	15.8	13.6	(0.7)	(3.4)	47.4	4.9
		Morgan Stanley	278.5	72.1	2.5	16.9	15.6	10.4	(2.5)	(4.2)	33.2	(1.2)
		Charles Schwab	171.9	97.8	3.4	21.8	16.5	22.8	(10.5)	(9.6)	16.9	(5.9)
		Robinhood	68.6	37.1	6.2	21.7	31.5	17.8	(8.1)	(28.4)	47.5	(32.7)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37.7	82.5	6.9	34.9	19.7	14.4	(3.6)	(5.9)	17.2	(6.4)
결제	미국	VISA	626.5	21.8*	15.2	60.5	25.4	23.9	(3.2)	(1.7)	(7.9)	(8.5)
		MasterCard	469.5	17.5*	43.3	201.4	27.3	16.6	(4.1)	(1.2)	(5.6)	(7.8)
		PayPal	38.3	6.1*	1.8	23.7	8.0	(3.9)	3.0	(27.1)	(44.4)	(28.7)
	유럽	Adyen	37.4	0*	4.8	21.4	25.8	15.6	(11.7)	(28.3)	(44.0)	(27.2)
핀테크	미국	Block	32.3	0*	1.4	7.3	21.6	(45.9)	(4.9)	(18.2)	(22.1)	(18.2)
		Upstart	2.9	0*	3.2	20.3	27.7	134.8	(23.4)	(36.7)	(59.2)	(33.0)
		Affirm	17.0	0*	4.3	10.7	46.7	628.7	(10.4)	(29.9)	(25.5)	(31.4)
	중국	LuFax	2.4	N/A	N/A	2.4	N/A	흑전	0.0	0.0	0.0	0.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2/20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